

농약사용 수칙 준수가 먼저

안전성 감시체계 우려할 정도 아니다

최근 언론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특정 국가에서 사용금지 또는 미등록된 농약이 우리나라로 수출되어 사용되고 있고 농약의 안전성 검토가 소홀하다는 등의 기사 내용을 접할때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의 위해성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본인은 대학에서 독성학을 강의하고 있고 농약의 안전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농약은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여 농산물의 수량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사용되는 근대 농업의 필수적인 영농자재이나 유기합성 화학물질로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이므로 인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안전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은 현재 국내 농약개발 기술이 미흡하고 자체개발에는 상당한 기간과 시설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 선진국에서 개발된 농약 원료를 수입,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약을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

농약은 나라마다 기후풍토와 재배작물, 그리고 발생하는 병해충과 잡초의 발생양상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영농 여건에 따라 사용하는 농약과 사용제한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체나 환경에 안전한 농약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안전성이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라도 사전에 전문연구기관에서 잔류성과 독성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공인기관에서 실시한 발암성등 만성독성 시험성적을 토대로 보사부와 환경처에서 안전성을 확인한다.

이어 학계와 소비자단체대표등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관리 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의 종합심의를 거쳐 인체 및 환경에 안전성이 인정되어야만 농약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축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농약사용자 스스로가 농약의 안전사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농약안전성 검토나 감시 체계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우려할 정도로 허술한 것이 아니며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검토·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이창엽<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中央日報 1992. 12. 2〉